

# 경전철 동북선 도시철도 공정률 74%... 내년 개통

## 노원구, 20일부터 역명 공모 검토 후 6월 2차 선호도조사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경전철 동북선 도시철도의 역명 제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기간을 15일 밝혔다.

동북선 도시철도(이하 동북선)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기간을 15일 밝혔다. 동북선 도시철도(이하 동북선)는 2027년 4월 현재 전체 공정을 74% 노선 지역을 지나 4공구 전제 공구 중 가장 빠

른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노원, 강북, 성북, 성동 각 구는 서울시로부터 동북선 역명 제정안 제출을 요청받은 상태다.

동북선은 노선의 상계역으로부터 성동의 왕십리역에 이르는 13.4km의 노선으로 구성되며, 16개의 정거장이 설치된다. 그중 구에는 6.3km 구간이 지나며 7개 정거장이 설치되는데, 환승역으로서 기존의 역명을 활용하는 3개 역(상계역·하계역·월계역)을 제외한 4개 역의 이름을 짓는 절차가

시작된다.

주민의견 수렴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는 역 인근 주민들의 명칭 제안을 받고, 2차는 전체 주민의 선호도를 묻는 방식이다.

1차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은 오는 20일부터 5월15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역명 제정이 필요한 ▲110 정거장(월계1·2동) ▲113 정거장(하계동) ▲114 정거장(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4동), ▲115 정거장(중계본동, 중계1·4동)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위

해답하는 등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역명은 정거장의 위치와 인접한 옛 지명, 주요 공공시설이나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의 명칭을 활용하는 등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름, 특정 단체나 기업의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는 명칭 등은 배제된다.

1차 의견 수렴에 제안된 역명은 국립국어원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전체 노원주민의 2차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2차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에 제안할 역명 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구는 동북선을 GTX-C 노선과 함께 지역의 광역 교통망 확충의 중요한 축으로서 장소 추진되도록 지원해 왔다. 오승록 구청장 역시 지난 3월 말 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대책, 주민 불편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김포시, '지구의 날' 22일 10분 소등

### 가정·사업장도 참여 독려

경기 김포시는 제56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진행되는 '전국 소등 행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 절약과 기후 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시청사를 비롯한 공공청사와 지역 내 주요 건물의 조명을 소등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도 가정과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후행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지구의 날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의 의미를 돌아보는 날"이라며 "최근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포=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92곳 점검 인천 강화군

인천 강화군이 불철 해빙기를 맞아 재난취약시설 92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월부터 결빙했던 지표면이 녹으며 자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송백·사면·급경사지·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이상 없음 84곳 ▲경장 시정 3곳 ▲보수·보강 4곳으로 확인됐으며, 2024년 집중호우로 붕괴됐던 그랑드빌아파트 용벽에 대해서도 보수·보강이 완료된 현장을 점검했다.

인찬=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이상일 시장(오른쪽 첫 번째)이 지난 14일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용인시, 올 상반기 대광위에 수지구 동천동 광역버스 신설 건의

### 입주자대표회의 서명 제출 받아

### 노선 확대·마을버스 개선 검토

경기 용인시가 수지구 동천동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지적하며 집단민원을 통해 호소한 광역버스 신설, 기존 노선 공급

확대, 마을버스 개선 등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동천동 일대에는 5000가구 이상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됐지만, 대중교통 체계 미흡으로 시민의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동천동 공동주택 7곳의 입주자대표회의는 3월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서명운동을 진행해 주민 약 7500명의 서명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교통위원회와 용인시가 대중교통 개선 민원을 공식 제출했다.

이상일 시장은 "광역버스 노선 신설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교통위원회에 동천동 지역 운행을 위한 광역버스 노선 개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가 올해 상반기 중 건의하고, 그 필요성을 적극 강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인=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이륜차 전국번호판 제도 도입 의정부시, 단일 번호체계로 전환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3월20일 시행한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가 한 달여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번호체계 개편이 점차 자리잡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지역 표시를 없애고 전국 단일 번호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번호판 크기 확대에 따른 식별성 향상과 이륜자동차 이용 증가, 생활권 확대 흐름에 대응하고, 번호판 중심의 지역 구분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등록 및 재사용 이륜자동차에는 전국번호판이 적용되며, 단순 명의 이전시에는 기존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민정홍 기자 mjh@siminilbo.co.kr

## 구미시, 공중케이블 정비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 올해 67억 확보

### 19개 구역 정비 모델 시범 적용

경북 구미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상'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 실적과 사후 관

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전국 최상위 수준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하위등급 지자체의 삭감 물량이 상위 등급으로 재분배되는 원칙에 따라 기본 배정액 57억원에서 10억4000만원이 증액된 총 67억4000만원의 율

해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올해부터 시차되는 '제3차 공중케이블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기존의 단순 공중케이블 정비를 넘어 산업을 등 19개 구역에 개선된 정비 모델을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해지 회

선의 단계별 통합 철거 ▲공중케이블 불린선 시정사업 추진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시는 ▲'공중케이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대상 지역으로 선 정로 공중케이블 난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구=박병봉 기자 pbs@siminilbo.co.kr

## 푸른 숲 걸으며 도심·한강 한눈에 양천구, '용왕산 스카이워크' 조성

### 보행자도 쉽게 이용 가능 390m LED 조명 점등도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숲 위를 걸으며 도심과 한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용왕산 스카이워크' 조성을 완료하고, 새로운 경관 명소 탄생을 예고했다.

'용왕산 스카이워크'는 최대 폭 3m, 연장 224m 규모의 무장애 데크로 조성됐다. 특히 모든 구간이 완만한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설계해 노약자, 유모차·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 약자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산책 해운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고, 경관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를 여러 차례 보완하는 등 완성

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약 10m 높이의 공중 통틀 구조와 지형을 살린 곡선형 데크길이다. 나무 허리 높이를 가로지르는 공중 보행로는 숲 위를 걷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고, 산책을 따라 휘어지는 곡선형 통틀은 자연의 생명력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최고의 조망 지점은 용왕정 정자와 어우러진 원형 데크다. 어느 방향에서든 시야의 막힘이 없으며 숲과 도심, 한강이 한눈에 펼쳐지는 파노라마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야간에는 스카이워크 난간을 따라 설치된 390m의 LED 라인 조명이 점등되며, 곡선 구조의 아름다움과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만나 낭만적인 야경을 선사한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비 10만원 지급

### 마포구, 인력 부족 문제 해결 근로환경 개선·채용 확대 유도

서울 마포구는 올해부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 월 10만원씩 분기별 총 30만원이 지급된다.

15일 구에 따르면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에 비해 운수종사자의 이탈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 위기 감소와 배차간격 증가 등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구는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마을버스 운수업체 수가 많고, 등록 대수도 106대로 상위권

을 차지하고 있다.

구는 처우개선비를 도입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마을버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이를 위해 구는 2025년 7월 운수업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관련 조례 개정해 처우개선비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처우개선비 지급과 함께 운수종사자 직무교육 등을 병행해, 운수종사자가 근로 환경과 복지 여건 개선에 힘쓰고 채용 확대에도 적극 나서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민원하 기자 mmh@siminilbo.co.kr

살고살고 돼  
함께 만드는 인천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Waterworks Headquarters Incheon Metropolitan City

# 진심은 변하지

# 않습니다

많은 것을 바꿔 가고 있지만  
'시민에게 맑은 물을 드린다'는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흐르겠습니다.

전문인력 확충, 체계적인 역량 강화,  
정수시설 개선으로  
정수질을 확보했습니다.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인증으로 더 깨끗했습니다.  
• 2021.9.2. 국제인증 획득

시민께서 인천수돗물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 인천하늘수